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회
2026년 상반기 코가 상임사 및 회장단 모임열려

한국봉제신문

한국 봉제산업을 선도하는

Vol. 102




오름 (OROM) 컨설팅
ITAS - ITAP - SILVER VISA
 PENDIRIAN & DOKUMEN PERUSAHAAN
 021-45856898/4207/4911/4910
 법인설립 (PMA & PMDN)
 SUHADA : 0812-97598638
 WINDA : 0811-8821462
 visa.orom@gmail.com
 www.orom.co.id indocity1991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gaeto@gmail.com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중고 봉제기계, 봉사 및 악세사리, 매 입
PT. SHINHAN GLOBEL
 SHIN H. G +62 858 1369 4992
 Kakao ID 6shg10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KOREA GARMENT ASSOCIATION IN INDONESIA

인니 무역장관 “지금이 적기” ... 인니-미국 관세 협정 옹호



▲자카르타 땀중 뿌리옥항 자카르타 국제컨테이너터미널(JICT)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과 ‘상호무역협정 (ART·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추진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협상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부디 산토소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지난 22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지금이 적기”라며 “인도네시아는 수십 년간 미국과 보다 포괄적인 무역 틀을 모색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ART가 “기회”라며, 양국 모두 수출 확대를 통해 상호 이익을 얻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와 미국은 1996년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을 체결했지만, 약 30년간 포괄적 협정 체결에는 실패했다. 반면 ART는 비교적 빠르게 타결됐다.

현재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최대 무역흑자 대상국으로, 대미 수출은 309억 달러, 무역흑자는 181억 1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인도를 넘어선 규모로, 전체 수출의 약 11%를 차지한다. 산토소 장관은 “이 시장을 다른 곳으로 대체하기는 어렵다”며 섬유, 신발, 전자 등 노동집약 산업에 있어 미국 시장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ART가 미국산 수입 급증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의무가 아닌 선택적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밀과 대두 등 주요 농산물을 미국에서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향후 수입은 총량 증가가 아닌 공급처 전환에 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미 무역수지가 균형에 가까워지는 것은 문제없으며, 전체적으로는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이 제기한 불공정 관행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변론서를 제출했다”며, 과잉 생산이나

강제노동 등 의혹에 대해서도 “수요에 따른 생산일 뿐”이라며 시장 왜곡 주장을 일축했다. 공청회는 5월 초 열릴 예정이며, 정부는 ART 체결을 통해 미국의 150일 관세 유예 종료 이후 추가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ART가 오히려 인도네시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인도네시아 경제·금융 개발연구소(INDEF) 산업·무역·투자센터장 안드리 사프리오 누그로호는 24일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협정이 인도네시아를 미국에 종속적인 위치에 놓이게 할 수

있다”며 “불공정한 조건을 수용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ART가 301조 조치로부터 보호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협정 의존보다는 제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보다 인도네시아에 더 많은 의무가 부과되는 불균형적인 상황을 지적하며, 에너지와 식량을 포함한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가 국내 정책 여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리안다 락소노 경제연구원도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적용 중인 ‘무역법 122조’ 관세가 ART 조건보다 낮으며, 7월 종료되

는 ‘7월 절벽(July cliff)’ 이전에 협상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관세 장벽 완화나 국산부품사용요건(TKDN) 완화 등 개혁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미국 정책에 맞추도록 요구하거나 투자 심사 강화는 오히려 투자 유치와 글로벌 공급망 편입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미국이 협정이행을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협정을 지키지 않으면 미국의 301조 조치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어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회 2026년 상반기 코가 상임사 및 회장단 모임열려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회(회장:김화룡) 지난 4월 25일 보고르 자고라위 골프클럽에서 상반기 코가 상임사 및 회장단 모임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화룡 회장과 서광호, 이규백 수석 부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과 코가 상임사인 세아, 두산, 대한글로벌 등 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동을 통해 친목도 다지고 그간의 업무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미-이란 전쟁으로 유가폭등등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 봉제기업 역시 타격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재인니한국봉제협



회는 이러한 상황들을 예의 주시하며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잘 극복해 나갈 방법과 함께 상호 독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끊임없이 나타나는 글로벌 경

기의 불확실속에 우리 봉제기업의 자생력과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는 다가올 비전에 청신호를 보내고 있어보인다.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gaeto@gmail.com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34년 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 +62 21 440 3926
 F. +62 21 440 3944

sales@dongjung.net
 bhjangjkt@gmail.com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섬유패션 3월 수출 ‘회복세’ 올라왔다… 수입물량은 감소

의류 17.5% 증가 · 직물 3.8% 감소, 산업 내 양극화 확대



▲3월 의류 수출 늘고 수입은 줄었다. 사진=게티이미지

3월 한국 전체 수출은 86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9.2%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26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경공업 수출 확대 국면에서 섬유·의류 및 화장품 제품군도 증가세를 보였으나, 반도체 중심의 구조적 편중은 더욱 강화됐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6년 3월 전체 수출은 86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9.2% 증가하며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입은 604억 달러로 13.2%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26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섬유·의류가 포함된 경공업 제품 수출은 41억 26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9.1% 증가했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의류 수출은 1억 7900만 달러로 17.5% 증가한 반면, 섬유사는 6700만 달러로 8.2% 증가에 그쳤다. 또한 직물 수출은 2억 7200만 달러로 3.8% 감소하며 동일 산업 내에서도 완제품과 중간재 간 수요 흐름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2026년 1~3월 누적 기준으로도 의류 수출은 12.9% 증가한 반면, 섬유사는 1.5% 감소, 직물은 6.8% 감소하였다. 이는 글로벌 의류 소비는 회복되는 반면, 중간재 중심의 전통 섬유 수요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장품이 포함되는 화학공업 제품 수출은 72억 8200만 달러로 9.1% 증가하였다. 다만 같은 기간 반도체 수출은 329억 7200만 달러로 149.8% 증가하여, 전체 수출 증가의 대부분이 전자·반도체에 집중된 구조가 확인된다. 수입 측면에서는 섬유류 수입이 3억 100만 달러로 4.9% 감소하

였고, 의류 수입 역시 10억 5900만 달러로 6.2% 감소하였다. 이는 소비재 전체가 2.1%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흐름으로, 의류 소비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중국(64.9%), 미국(47.3%), 유럽연합(19.3%) 등 주요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으나, 중등은 49.1% 감소하였다. 특히 중등 감소는 지정학적 요인과 에너지·건설 관련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장 구조 측면에서는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업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상당 부분을 견인하는 가운데, 경공업 제품 수출도 49.2% 증가했으나 섬유·의류는 완만한 회복세에 머물러 있다. 이는 고부가가치 전자산업 중심의 수출 구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자카르타 주정부, 전기차 인센티브 뺀다”

자카르타 주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세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전기차 과세 기준을 담은 새 규정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유지돼 온 세제 혜택 구조가 바뀔 전망이다.

기존에는 전기차가 연간 자동차세와 차량 소유권 이전세 면제 대상이었다. 신차 구매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인센티브도 제공됐다.

그러나 최근 시행된 내무부 규정 제11호(2026년)에 따라 전기차는 더 이상 자동차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새 규정은 전기차 세금 면제나 감면 여부를 각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지방정부별로 서로 다른 세금 정책이 나올 가능

성이 커졌다.

쁘라모노 아농 자카르타 주지사는 “내무부 규정이 나온 만큼 자카르타 주정부도 전기차와 관련한 공정한 정책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에서는 이미 2023년 주지사령을 통해 전기차 세율을 0%로 정한 바 있다. 다만 이는 프라모노 주지사 취임 이전에 마련된 규정이다.

기존 인도네시아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과 함께 도로 훼손, 환경오염 기여도 등을 반영해 산정됐다.

하지만 새 규정에서는 환경오염 항목이 명시적으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가 과세 측면에서 보다 비슷하게 취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S&P ‘BBB 안정적’ 유지 확인…신용등급 방어 나서

인도네시아 재무장관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는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춘계회의 참석 계기에 S&P 글로벌 레이팅스와 면담한 결과, 인도네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이 ‘BBB(투자적격)’에 안정적 전망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1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뿌르바야 장관은 면담에서 국내 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를 3%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논의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준은 1997~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법으로 도입된 재정 건전성 기준치다.



▲자카르타 수디르만 도로를 지나는 시민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뿌르바야 장관은 “S&P가 현재 등급과 전망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확인해줬다”며 “재정 상황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S&P는 정부 수입 대비 이자 부담 비율이 15%를 넘어선 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을 언급

했다. S&P는 오는 6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경제와 예산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다.

앞서 무디스와 피치 레이팅스도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을 유지했지만, 세입 부진과 높은 부채 상황 부담을 이유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아이르랑가 하르파르 또 경제조정장관은 정부의 새로운 재정·투자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이 반영된 결과라고 반박했다. 특히 국부펀드 성격의 다난따라 설립을 통해 재정 기능과 투자 기능을 분리하고, 중장기 성장 동력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올해 1분기에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자본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뿌르바야 장관은 해외 투자자들이 자신을 잘 알지 못한 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국제 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이번 방미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글로벌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를 건고한 경제 기초와 회복력을 갖춘 ‘유망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한가지라도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인도네시아 건설환경에 최적화 되어있는 **신화**는 고객의 마음에 신뢰를 심어주는 건설기업입니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성공전략을 **신화**가 함께 하겠습니다.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PT. SHINHWA TECHNO PLANT
 Kawasan Industri Jababeka II
 Jl. Industry Selatan 8 Blok EE-6P Cikarang,
 Bekasi 17530 Indonesia
 Tlp. 021-8984-1283 Fax. 021-8984-1284
 Email. shinhwatechno0408@gmail.com

플라스틱 가격 급등에 인니, 포장재 다변화 추진... 종이 및 유리로 전환가속



▲수퍼마켓의 음료수 판매대(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글로벌 정세로 플라스틱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특히 식음료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장재 다변화와 대체 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산업부 농공업 담당 부처 줄리 아르디카 직무대행은 21일 “식음료 산업은 다양한 포장 수요에서 플라스틱 의존도가 높다”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을 계기로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지속가능한 포장재 혁신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는 종이, 유리, 금속, 재활용 플라스틱(rPET) 등으로 포장재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이는 비용 절감과 지속가능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이 반영된 변화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경쟁력을 갖춘 펄프·제지 산업을 기반으로 종이 포장재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 종이 포장재는 유통, 식음료, 전자상거래,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채택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산업부는 냉장 유통망 의

존도를 줄일 수 있는 무균 포장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향후에는 배리어 페이퍼(차단 코팅지), 종이병, 나노셀룰로오스 코팅, 기능성 종이 포장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와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5년 기준 인도네시아 펄프·제지 산업은 113개 기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간 펄프 1,448만 톤, 종이 2,537만 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수출 규모는 82억 달러에 달하고 약 148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포장 산업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으로 평가된다.

유리 포장재 역시 대안으로 재조명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 사용 비중은 2~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산업부는 이를 5~6%까지 확대해 유리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카사바와 해조류 등 천연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플라스틱 개발도 장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두 원료 모두 세계 주요 생산국으로, 관련 산업 확대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국가산업정보시스템(SIINas)에

따르면, 현재 카사바 기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능력은 연간 약 8천톤, 해조류 기반은 28톤 수준이다.

한편 업계는 플라스틱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식음료생산자협회(GAPMM)의 아디 루끄만 회장은 최근 플라스틱 가격이 종류와 용도에 따라 30~100%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음료업체는 과거 유리에서 플라스틱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유리로 회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알킨도 나라따마(Alkindo Naratama)의 헤르완또 수판또 대표는 종이 기반 등 플라스틱 대체 포장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자사 종이 포장 제품 매출이 올해 들어 20~30% 늘었다고 전했다. 그는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향후 3~4개월 동안 종이 포장재 수요가 수출 증가와 함께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21-3002-9087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인도네시아, 이달부터 러시아산 원유 1억5천만 배럴 수입



▲지난 4월 13일 정상회담 한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왼쪽)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인도네시아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인도네시아가 러시아로부터 원유 1억5천만 배럴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24일 안타라통신이 보도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친동생인 하심 조요하디쿠수모 에너지·환경 특사는 전날 열린 ‘2026 경제 브리핑’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도네시아가 이르면 이달부터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시작할 전망이다. 중동 전쟁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바흐릴 라하달리아 에너지 광물장관은 17일 자카르타에서 “이번 계획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 13일 프라보워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이후 양국은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포함한 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원유 조달선을 다변화하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

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정부는 수입처를 넓혀 국내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원유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정학적 충돌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과거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Saudi Aramco 시설이 공격받았을 때처럼 특정 산유국의 생산 차질이 전 세계 원유 유통과 가격에 연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바흐릴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국내 석유제품과 LPG 공급은 현재 안정적인 상태라고 강조하면서도, 정부는 국영 에너지회사 빠르따미나 등과 함께 대체 공급처 확보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달부터 차량당 하루 50리터(L)로 연료 판매량을 제한했다. 또 보건과 안보 등 필수 부서 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공무원이 매주 금요일 재택근무를 하고 공용 차량 이용 빈도는 절반으로 줄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PT. JASON LOGISTIC INDONESIA

글로벌 물류 전문 파트너

Your Professional Global Logistics Partner

장기적 비즈니스 성장을 함께하는 물류 파트너

- Air Cargo
- Sea Cargo
- Warehouse
- Customer Service

JASON 지사

중국: 상하이, 광저우, 선진, 샤이먼, 청도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대만/한국

Ruko Gading Kirana Blok C10 No.10, Kel. Kelapa Gading,
Kec.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Indonesia
Telp: 021-45855919 | Email : cs.team@jli.kr
한국담당자: 박치성 +62 821 1210 0051 | 현지담당자: HENDRA +62 898 1142 2911

2026년도 KOGA 연회비 수입현황 (01/01~04/27)

NO.	회원사명	입금일자	회장단	상임사	일반사	찬조금
1	ANUGERAH ABADI BERSAMA	2026.01.28			5 JT	
2	WOO SHIN GARMENT	2026.01.28			5 JT	
3	KAHO INDAH	2026.01.28			5 JT	
4	CITRA UNGGUL PERKASA	2026.01.28	20 JT			
5	UNGARAN INDAH BUSANA	2026.01.28			5 JT	
6	LEADERS WORLD	2026.01.28			5 JT	
7	SEYANG ACTIVEWEAR	2026.01.28			5 JT	
8	GOLDEN GARMENTS	2026.01.29			5 JT	
9	DAE DONG	2026.01.29			5 JT	
10	YEONHEUNG MEGA SARI	2026.01.29			5 JT	
11	GAYA MAKMUR	2026.01.29			5 JT	
12	ING INTERNATIONAL	2026.01.29			5 JT	
13	INKORDAN	2026.01.30		30 JT		
14	JM TECH	2026.01.30			5 JT	
15	DASAN PAN PACIFIC	2026.01.30			5 JT	
16	TAE WON INDONESIA	2026.01.30			5 JT	
17	MUTIARA BUSANA INDAH	2026.02.02	20 JT			
18	MYUNG SEONG MACHINER	2026.02.04			5 JT	
19	DREAMWEAR	2026.02.04			5 JT	
20	TP.INC TRADING JAKARTA	2026.02.05		30 JT		
21	GAYA INDAH KHARISMA	2026.02.05	20 JT			
22	SOLVE IT	2026.02.06			5 JT	
23	OROM CONSULTING	2026.02.06	20 JT			
24	MULTI WELL EMBROIDERY	2026.02.09			5 JT	
25	KNH GAMINDO JAYA	2026.02.09			5 JT	
26	MUARA TUNGGAL	2026.02.09			5 JT	
27	PT.SCENIC	2026.02.09			5 JT	
28	LIMANTARA INDAH MAKMUR	2026.02.09			5 JT	
29	BLUE ROSE NARADO	2026.02.10			5 JT	
30	ANUGERAH ABADI MAGELANG	2026.02.10			5 JT	

NO.	회원사명	입금일자	회장단	상임사	일반사	찬조금
31	MINU GARMENT SUKSES	2026.02.10			5 JT	
32	HANSOL PLEATS	2026.02.10			5 JT	
33	C- SITE TEXPIA	2026.02.11			5 JT	
34	WINNERS INTERNATIONAL	2026.02.12		30 JT		
35	PERMATA GARMENT	2026.02.12			5 JT	
36	RINA JAYA GARMENT	2026.02.13			5 JT	
37	MAJUEL	2026.02.13			5 JT	
38	GLOBAL BUSANA INTERNATIONAL	2026.02.13			5 JT	
39	SJ CONSULTING	2026.02.18			5 JT	
40	ZIBEN INDONESIA	2026.02.20			5 JT	
41	WOORI SUKSES APPAREL	2026.02.21			5 JT	
42	BINTANG GLOBAL ABADI	2026.02.23			5 JT	
43	PURNAMA ASIH SUR	2026.02.24			5 JT	
44	KG FASHION	2026.02.24			5 JT	
45	DONG JUNG INDONESIA	2026.02.25			5 JT	
46	YB APPAREL	2026.02.25			5 JT	
47	PT. ACE	2026.02.25			5 JT	
48	DOOSAN CIPTA BUSANA JAYA	2026.02.25		30 JT		
49	DONG IL	2026.02.26			5 JT	
50	SUKWANG INDONESIA	2026.03.05		30 JT		
51	HOKI MACHINE INDONESIA	2026.03.05			5 JT	
52	UNICORN	2026.03.06			5 JT	
53	DOORI LESTARI GARMENT	2026.03.10			5 JT	
54	JUN H INDONESIA	2026.03.10			5 JT	
55	HESED INDONESIA	2026.03.17	20 JT			
56	DONG YANG NISUSINDO	2026.04.01			5 JT	
57	BANGUN MAJU LESTARI	2026.04.09	50 JT			
58	DAYUP INDO	2026.04.13			5 JT	
59	IMPIAN ANUGERA LESTARI	2026.04.16			5 JT	
60	KARYA TRI ABADI	2026.04.25			5 JT	

중동 긴장 고조에 인니로 눈 돌리는 투자자들...정부 “기회 확대”



▲자카르타 호텔인도네시아 로터리(Bundaran HI) 환영 동상(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를 계기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1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투자및다운스트림부 로산 루슬라니 장관은 13일 국회 제12위원회(에너지·광물자원 담당) 청

문회에서 “중동 지역 긴장이 높아지면서 해당 지역 투자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 밝혔다. 특히 중동 투자자들이 정부와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으며, 잠재 투

자들과의 협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분야나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부펀드 다난따라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는 로산 장관은 국영항공사 가루다 인도네시아와 걸프 지역 항공사 간 협력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브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이슬람성지순례(Hajj) 항공편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된다. 아랍에미리트(UAE)의 에미레이트항공과 에티하드항공과도 초기 협의를 진행했으나, 글로벌 항공유 가격 상승 등으로 항공업 구조 개편에는 시간이 걸

릴 전망이다. 로산 장관은 또 브라보워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미국과 서방 국가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과도 접촉하며 개방적이고 비동맹 외교 기조를 강조해왔고, 이는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달 초 일본과 한국을 국민 방문한 브라보워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 유치를 확보했다. 일본은 에너지·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236억 달러 규모 투자를 약속했고, 한국과는 제조업·인프라 등 분야에서 총 102억6천만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 27건을 체결했다.

올해 1분기 투자 실현액은 약 497조 루피아(약 29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7%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26년 연간 투자 목표를 2,040조 루피아로 설정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그동안 전체 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왔으나, 지난해에는 국내 투자가 이를 앞질렀다. 2025년 국내 투자는 1,030조 루피아로 외국인 투자 900조 루피아를 약 130조 루피아 상회했다. 지난해 총 투자 실현액은 전년 대비 12.7% 증가한 1,930조 루피아로 정부 목표를 소폭 웃돌았으나, 증가율은 2024년(20.8%)보다 둔화됐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털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
박용상 : 0815 1902 4176

인니 비보조 연료 가격 급등... 물가 압력 확대 우려



▲쁘르따미나 주유소(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국영에너지기업 뿌르따미나(Pertamina)가 중동 지역 봉쇄와 경제 제재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자 비보조 연료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회사에 따르면 18일부터 자카르타 기준 뿌르따막스 터보(ROX 98) 가격은 리터당 13,100루피아에서 19,400루피아로 올랐다. 디젤 제품은 더 큰 폭으로 상승해 텍스리프트(Dexlite)는 14,200루피아에서 23,600루피아로, 뿌르따미나 텍스(Pertamina Dex)는 14,500루피아에서 23,900루피아로 각각 인상됐다. 반면 보조금이 적용되는 뿌르따리프트(Pertalite)와 바이오솔라(Biosolar)는 각각 10,000루피아, 6,800루피아로 유지됐고, 뿌르따막스92(Pertamax, RON 92)와 뿌르따막스 그린(Pertamax Green)도 각각 12,300루피아, 12,900루피아로 동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상이 경제 전반에 파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법연구센터(CELIOS) 비마 유디스띠라 소장은 19일 자카르타포스트에, 특히 뿌르따미나 텍스 가격이 약 65% 급등한 점을 지적하며 “중장비와 산업 기계에도 사용되는 연료인 만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

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연료로 이동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급 안정 유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제 유가는 현재 배럴당 90달러 안팎으로 정부 예산 가정치 70달러를 크게 웃돌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해상 교통이 사실상 중단되고 걸프 지역 석유·가스 시설이 피해를 입으면 공급 차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시프트연구소 뿌뜨라 아디구나 대표는 이번 가격 인상이 전체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연료에 국한된 만큼 상징적 성격이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분쟁 초기 호르무즈를 출발한 유조선이 도착하기 시작하면 실제 공급 부족 영향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현재 세계 원유 공급은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개혁센터(CORE) 모하마드 파이살 소장은 연료 보조금이 결국 정부 부담이지만 초기 비용은 뿌르따미나가 떠안는 구조라며 “구매력이 높은 계층이 사용하는 고급 연료 가격을 조정해 부담을 분산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동 정세도 긴장을 더하고 있다. 이란은 미 해군 봉쇄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재개했으며, 미국은 이란 항만 봉쇄를 유지해 20척 이상의 선박이 회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시적 개방 기간 일부 유조선이 통과했지만 이후 대부분 철수했으며,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유조선에 발포하고 크루즈선을 위협했다는 보고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란 외무차관 사이드 카티브자데는 미국의 봉쇄가 휴전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뿌르따미나의 해운 및 물류 자회사 뿌르따미나 인터내셔널 쉬핑(PIS)은 자사 선박 뿌르따미나 프라이드와 감수노로가 해협 통과가 막혀 아라비아만에 발이 묶여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관계 당국과 협력해 안

전 항로 확보를 준비 중이며 승무원과 화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외교부 대변인 이본느 므웡강은 테헤란 주재 대사관 등과 협력해 현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선박 운항 재개를 위해 기술적·운영상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해 해상에 묶여 있는 러시아산 원유의 합법적 구매를 허용하는 제재 예외 조치를 5월 16일까지 연장했다. 이는 이란 전쟁 여파로 경제적 충격을 겪는 아시아 국가들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협상 진전에 따라 원유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도 인상됐다. 뿌르따미나는 비보조

LPG 12kg가격을 기준 19만2천루피아에서 22만8천루피아로 18.75%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2023년 이후 첫 가격 조정이다. 해당 가격은 자카르타와 반덴, 서부·중부·동부 자바, 족자카르타, 발리, 서누사 가라 등에 적용되며, 기타 지역은 유통 비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또한 비보조 LPG 5.5kg 가격도 같은 지역에서 9만 루피아에서 10만7천루피아로 18.89% 인상됐다. 이 역시 2023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앞서 뿌르따미나는 2023년 국제 유가 지표인 아람코 계약가격(CPA) 하락과 루피아 강세를 반영해 12kg LPG 가격을 19만2천루피아로 인하한 바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미얀마의 지난 5년 수출액 1위는 봉제 제품

미얀마 상업부 무역국에 따르면, 2025년도(25년 4월~26년 3월)까지의 5년간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봉제 제품이 가장 컸으며, 천연가스가 그 뒤를 이었다고 8일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가 전했다. 상위 20개 품목의 총 수출액 중 봉제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1년도 26.0%, 22년도 32.0%, 23년도 28.0%, 24년도 25.4%, 25년도(26년 2월 말까지의 데이터) 28.3%였다. 수출 대상국은 일본, 독일, 폴란드 등 85개 국가 및 지역이다. 수출 2위는 천연가스로, 21년도 21.0%, 22년도 24.0%, 23



▲[사진=게티이미지]

년도 23.0%, 24년도 21.9%, 25년도(동기 대비) 28.3%였다. 주로 중국과 태국으로 수출되었다. 한편, 수입 품목 1위는 석유 제품으로, 상위 20개 품목의 총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년도 28.0%, 22년도 31.0%, 23년도 32.0%, 24년도 35.4%, 25년도(동기 대비) 25.3%였다. 수입처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27개 국가 및 지역이었다. 미얀마는 이 외에도 ◇CMP(재단·봉제·포장) 위탁 방식에 따른 봉제 제품 원료(실, 직물, 레이스, 니트 원단) ◇건설·공업용 철강 ◇기계·장치 ◇팝업 ◇비료 ◇플라스틱 원료 ◇배전 설비·설치 기기 ◇자동차·부품 ◇화학 제품 ◇의약품 ◇건전지 ◇각종 종이 ◇밀 ◇밀가루 ◇비금속 광물 ◇건설 자재 ◇선박·부품 ◇석유 굴착 장치·관련 용품 ◇철도 차량·철도 관련 기기 ◇금속 표면 처리 제품 ◇오토바이·부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nate뉴스

PT. Indokon Multi Sarana는 실내·실외 비디오트론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No.1 선도 기업으로, 인테리어 시공 전문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략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T. Indokon Multi Sarana

신뢰할 수 있는 **비디오트론 솔루션 & 인테리어 시공** 전문 기업

PT. Indokon Multi Sarana는 정밀한 기획, 프리미엄 자재, 그리고 전문적인 시공 기준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미적 가치, 높은 완성도를 갖춘 비주얼 및 공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선명한 디스플레이, 내구성 높은 시스템, 그리고 철저한 납기 준수를 실현합니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 산업 단지, 오피스, 상업 공간, 공공 시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IMS www.indokonmultisarana.com
 (+62)21-2263-2551
 PT. INDOKON MULTI SARANA, Jakarta, Indonesia

인니 이민국, 브까시 공사현장서 외국인 78명 적발... 불법 취업 조사



▲2026년 4월 8일, 서부자바 브까시 짜까랑 델타마스에 위치한 그린랜드 국제산업 센터 건설 현장에서 '위라 와스빠다 작전' 중 적발된 외국인 노동자 78명을 브까시 이민국 직원(왼쪽)이 안내하고 있다. (사진=자카르타포스트/브까시 이민국)

서부자바 브까시 이민국은 불법 취업 혐의로 외국인 78명을 조사 중이라고 17일 자카르타포스트가 전했다. 서부자바 이민국에 따르면, 이들은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 '위라 와스빠다(Wira Waspada)' 단속 작전에서 적발됐다. 브까시 델타마스 지역의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이들로, 단속 당시 여권이나 체류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외국인은 중국인 76명, 말레이시아인 1명, 베트남인 1명이다. 이들은 현재 브까시 이민국으로 이송돼 신원 확인과 함께 체류 자격과 실제 활동의 일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초기 조사 결과 중국인 7명은 임시체류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중국인 69명과 베트남인은 방문체류허가증을 소지했고, 말레이시아인은 관광 목적의 무비자 체류허가증을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델타마스 그린랜드 국제산업센터(GIIC) 내 데이터 센터와 기숙사,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국은 체류 자격과 다른 활동을 한 경우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이민국은 서류가 적법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반환 후 활동을 허용하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총 346명으로, 중국인이 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파키스탄(21명), 나이지리아(20명), 일본(13명), 싱가포르, 한국, 인도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포함됐다. 당국은 체류 허가 오남용, 거주지 변경 미신고, 불법 체류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됐으며, 향후 외국인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김재훈의 세무상식

최근 인도네시아 세무조사의 특징과 기업 대응 전략

최근 인도네시아 세무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세무당국의 데이터 확보 능력이 강화되면서, 단순 신고 검토 수준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신고 이상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 대상이 선정되었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전 분석을 통해 보다 정밀한 조사 대상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세무조사의 주요 특징과 기업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1. SP2DK 중심의 사전 검증 강화

최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료해명요구서(SP2DK)를 통한 사전 검증 절차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SP2DK는 단순한 질의서가 아니라 사실상 세무조사의 전 단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발송 가능성이 높다.

- 신고소득 대비 과도한 비용 발생
 - VAT 신고 불일치
 -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 데이터 불일치
 - 해외거래 증가 기업
-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식 세무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2. 데이터 기반 조사 확대

현재 세무당국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 금융정보 자동교환(AEOI)
-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

- 수출입 통관 자료
 - 은행 및 금융기관 정보
- 이러한 데이터는 서로 연계되어 분석되며, 단순 신고 오류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까지 식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부분 대응" 방식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3. 이전가격 및 해외거래 집중 점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관련 검토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 낮은 영업이익률(OM)
 - 반복적인 적자 구조
 - 로열티 및 서비스 수수료 지급
 -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 과다
- 실제 사례를 보면 단순히 이익률만을 기준으로 과세당국이 조정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충분한 방어 논리가 필요하다.

4. VAT(부가세) 이슈의 지속적 확대

최근 세무조사에서 VAT 이슈는 거의 필수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매입세액 공제 오류
 - 과세/면세 혼합 사업자의 안분계산 오류
 - 수입 및 해외거래 관련 VAT 처리 오류
- 특히 일부 기업은 안분계산을 적용하지 않아 대규모 세액 조정이 발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김재훈 대표

5. 기업의 대응 전략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 ① 신고 데이터 간 정합성 확보
 - ② 이전가격 문서화 및 논리 보완
 - ③ VAT 처리 체계 점검
 - ④ SP2DK 대응 프로세스 구축
- 특히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체계 구축"이다. 인도네시아의 세무환경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으며, 과거와 같은 경험 중심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 분석과 선제적 대응 전략이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C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asa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코참 국제세무관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TEL : 021 522 2739 kimjhoon@bngconsulting.co.kr

유성 종합건설 PT. YUSUNG JAYA ABADI

기술로 짓고
신뢰로 완성합니다.

건설 기계 전기 배관
정수 및 폐수처리시설

유성열 대표 : 0812 8037 0303

Ruko Tataca Puri Blok C1 No. 25 Jl.Raya CurugPos Bitung15810
yusungjaya1@hotmail.com / 021 598 0222



[신간] 40인의 리더가 전하는 《황금시장 인도네시아 슈퍼리치의 성공 수업》 출간 포스트 차이나 시대, 한국 기업의 새로운 돌파구는 ‘인도네시아’

중국과 베트남을 넘어, 한국 기업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필수 시장’으로 인도네시아가 급부상하고 있다.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을 담은 신간 《황금시장 인도네시아 슈퍼리치의 성공 수업》(순정아이북스)이 출간되었다.

골드만삭스가 지목한 ‘2050년 세계 경제 4강’의 가능성 저자인 이장희 KOTRA 아카데미 인도네시아 경제·경영 연구소장은 인도네시아가 단순한 잠재 시장이 아닌,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필수 전략 요충지라고 강조한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인도네시아가 2050년까지 미국, 중국, 인도와 함께 세계 경제 4강에 오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저자는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왜 지금 인도네시아를 선점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데이터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40인의 리더가 직접 밝히는 ‘필수 전략 로드맵’ 이 책의 가장 큰 차별점은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비즈니스 거인 40인을 심층 인터뷰했다는 점이다. 정책 결정권자, 대기업 최고경영자, 예비 유니콘 창업가 등 인도네시아 경제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리더들의 목소리를 통해



성공 확률을 높이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지 시장의 심층 분석: 경제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화 분석(휴스테드 지수), 이슬람 비즈니스 매너, 니켈 패권 전쟁의 이면까지 다각도로 해부.

* 성공과 실패의 교훈: 한국 기업인이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을 밑도 없게 담아 해외 진출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 제시.

* 통합적 통찰: 경제, 역사, 종교, 문화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상생 비즈니스(Win-Win)’를 위한 실질적 사고의 틀 제공.

“단순한 투자를 넘어, 인도네시아를 이해해야 성공한다”

저자 이장희 소장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장 등을 거치며 30여 년간 글로벌 통상 및 투자 유치 현장을 지켜온 전

문가다. 그는 단순히 시장의 기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라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조를 가진 국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임을 역설한다.

이상덕 전 주인도네시아 대사는 추천사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를 날카롭게 분석한 귀한 책을 꿈꾸는 기업인과 연구자들에게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가와 해외 시장 진출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불안용기로, 막연한 도전을 효율적인 전략으로 바꾸어 줄 필독서가 될 것이다.

- <책소개>
- * 도서명: 황금시장 인도네시아 슈퍼리치의 성공 수업
- * 지은이: 이장희
- * 발행처: 순정아이북스
- * 페이지: 480쪽
- * 가격: 36,500원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인니, 가사노동자 보호법 통과... 20년 논의 끝 결실

인도네시아 의회가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며 20여 년에 걸친 입법 논의가 결실을 맺었다. 21일 자카르타글로브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하원(DPR)은 21일 본회의에서 가사노동자 보호법안(PPRT)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처리는 여성 인권 신장을 상징하는 ‘까르띠니의 날(Kartini Day)’과 맞물려 이뤄졌다.

밥 하산 하원 입법위원장은 이번 법 제정을 “노동권 보호의 역사적 이정표”로 평가하며, 여성 해방의 상징인 라덴 아쟁 까르띠니(RA Kartini)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법은 총 12장 37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동안 법적 보호 없이 비공식 부문에 머물러 온 수백만 명의 가사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 근로 조건, 권리 보호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프로그램 접근권 보장, 직업 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인력 중개업체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노동자의 임금 공제는 금지된다.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하원 부의장은 사회보장 범위와 연금 제도 도입 가능성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령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금 보장에 국가 재정을 일부 투입하는 방안도 제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성 가사도우미(PRT), 여성운동위원회(KAP) 등 여성들이 인력주부 청사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해결하는 정부 차원의 정책을 떠달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2015.3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학대나 착취와 관련한 형사 처벌은 별도의 기존 법률로 다루지며, 이번 법안에는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 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감독을 의무화하고, 지역사회 단위 기관의 참여를 통해 가사노동자에 대한 폭력 예방도 추진하도록 했다.

가사노동자 고용은 고용주가 직접 하거나 허가된 중개업체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친인척이나 종교·교육 활동과 관련된 비공식적 또는 가족 내 도움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법 제정은 정부와 의회 간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뤄졌으며, 입법 과정은 “건설적인 협의”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관련 하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는 가사노동자들이 착취와 학대, 법적 보호 부족,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자카르타글로브/자카르타경제신문]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KYUNGWON COMPRESSOR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한국직영점: (주)동부경원세기
 TEL: +82-2-465-6308/3884 박용환 대표: +82-10-5345-2884
 Email: dbkw2000@hanmail.net Web Site: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 대리점: PT.KYUNGWON ARIM INDONESIA
 공장 및 사무실: JL. Niaga Industri Blok QQ2 Nomor 11 Kawasan Industri, Jababeka Phase 2, Desa/Kelurahan Pasirsari, Kec. Cikarang Selatan, KAB. Bekasi, Provinsi Jawa Barat
 TEL: +62-21-8926-1370 **전상규 법인장: +62-822-5818-8770**
 Email: dbkw2000@gmail.com

중동 긴장 속 인도네시아, 2026 하지 순례 강행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카바신전. [위키피디아 갈무리]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 하지(Hajj) 순례를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 4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 하지 관리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공식적인 입국 금지 조치가 없는 한, 안전 지침을 강화하여 순례를 차질 없이 수행할 방침이다. 올해 하지 순례는 5월 2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순례단의 첫 번째 그룹은 4월 22일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출국한다.

◆ 22만 1천 명의 순례 대장정
이번에 배정된 인도네시아 하지 순례객은 총 22만 1천 명이다. 순례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룹은 주부(약 5만 2천

명)이며, 민간 부문 종사자(약 4만 6천 명)가 그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1~64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65세 이상의 고령 순례자도 4만 명을 넘어섰다. 14년의 기다림 끝에 이번 순례 길에 오르는 브라미다 구만띠(39세) 씨는 “중동 정세를 인지하고 있지만, 오랜 소망인 하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녀를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특별한 대피 지침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 정부, 안전 최우선 강조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중동의 긴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순례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르판 유습 종교부 장관은 15일 “성지순례 진행을 위

한 준비는 99% 완료된 상태”라며, “안전 조치를 엄격히 준수하며 순례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시민보호국 역시 분쟁 지역을 우회하는 안전 항로를 설정하도록 항공사들에 당부했다. 운영 지원도 본격화됐다. 하지 업무를 담당하는 다흐닐 안자르 시만준택 종교부 차관은 순례객 지원 임무를 수행할 운영 요원 363명을 이미 제대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 고유가로 인한 비용 상승 부담

한편, 항공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항공료 인상이 순례 비용의 변수로 떠올랐다. 종교부는 올해 하지 순례 전체 운송비가 약 1조 7천억 루피아(약 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순례자 1인당 약 5,400만 루피야를 개인이 부담하며, 하지기 금관리청(BPKH)이 하지기금 운영수익을 통해 약 3,300만 루피야를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순례지인 메카에 호텔 177개, 메디나에 100개를 확보하고, 두 도시에 간이 식당 총 51개와 진료소 총 45개를 준비했다. 또한 메카와 메디나 간 교통편과 귀국 항공편도 준비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예고된 폭염, 섬유패션 노동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AAFA, 고온 대응 노동자 보호 가이드 발표



▲AAFA가 고온 대응 노동자 보호 가이드를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미국 의류 및 신발 협회(AAFA)가 고온 환경에서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 가이드를 발표했다. 폭염 및 고온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위험을 관리하고, 기업이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작업시설의 과도한 고열은 약 1만 8970명의 사망자와 2287만 건의 산업재해와 관련이 있으며, 이를 완화할 전략의 필요성이 점점 더 시급해지고 있다. 섬유·의류 산업은 노동집약적 구조로 인해 작업 환경 변화가 생산 차질 및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존의 품질·납기 중심 관리에서 작업환경 및 노동자 안전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리스크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가이드에 제시된 주요 권장 사항으로는 공장의 최대 열 임계값 설정, 구조적 냉각 및 환기 개선, 업무량 조정 및 수분섭취와 휴식 시간 증량, 열 스트레스 교육 및 의료 모니터링 제공, 브랜드와 구매자 및 공급업체 간의 대화 장려, 지역 노동 및 공중 보건 기준 준수 강화 등이 있다. AAFA는 이번 가이드를 통해 기업과 공급업체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와 유통기업들이 ESG 및 윤리적 공급망 기준을 강화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디젤 발전기

BGT POWER SOLUTIONS

판매
임대

점검관리

수리

유지, 보수



소형 5kVA ~ 220kVA

중형 250kVA ~ 700kVA

대형 800kVA ~ 4,000kVA

**오리지널!! 가격 경쟁력 제고! 고객사 니즈에 신속대응!
고객 맞춤형 시행! A/S철저! 철저한 유지,보수관리 제공!**

고객 문의

박성웅 Hp : 0812 9512 8990



PT. BINTANG GLOBAL TEKNIK

Mutiara Taman Palem Blok C19 No. 82, Cengkareng, Jakarta Barat 11730, Indonesia
Tel: 021-2252-4373, 2252-4342 | Fax: 021-2252-4365 | Email: bakchan@daum.net

“AI 대신 진정성” ...패션마케팅 ‘인간 중심 콘텐츠’ 영향력 확대 ‘소셜 AI 콘텐츠 불신 53%’ ...Z세대일수록 더 엄격



▲AI로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하락했다. 사진=에어리

패션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 중인 인공지능이 구매 결정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소비자들은 AI 기반 추천과 탐색 기능의 높은 편의성을 인정하면서도, 소셜 미디어에서 접하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이 뚜렷한 불신을 드러냈다.

리테일 테크놀로지 쇼(Retail Technology Show, RTS)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3%가 AI 생성 소셜 콘텐츠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디지털 친화도가 높은 Z세대에서 58%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51%는 AI 콘텐츠가 브랜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인식했으며, 43%는 AI 확산 이후 오히려 ‘인간 중심 콘텐츠’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응답했다. 이 역시 Z세대에서는 62%까지 상승했다. 탐색과 비교 단계에서는 AI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어도비(Adobe) 조사에 따르면 약 25%의 소비자가 AI를 주요 쇼핑 정보 탐색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AI 사용자 중 42%는 제품 추천과 조언을 의사결정의 주요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유고브(YouGov) 조사에서도 65%가 AI의 가격 비교 기능을 신뢰하고 59%가 상품 탐색 기능을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AI가 검색과 비교, 추천 등 구매 여정 초기 단계에서 이미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구매 결정에 가까운 설득과 전환 단계에서는 신뢰 장벽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유고브 조사에서 AI가 직접 구매를 수행하는 것을 신뢰하는 비율은 14%에 불과했으며, 어도비 조사에서는 소비자의 약 3분의 1이 콘텐츠가 AI로 생성된 것임을 인지할 경우 브랜드와의 상호작용을 중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클라비오(Klaviyo) 조사에서도 브랜드가 AI 생성 콘텐츠를 마케팅에 활용할 경우 32%의 소비자가 신뢰가 낮아진다고 응답했으며, 신뢰가 높아진다는 응답은 7%에 그쳤다. 이는 AI 콘텐츠가 구매 전환 단계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캡제미니(Cappgemini)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의 53%가 생성형 AI 추천을 기반으로 실제 구

매를 한 경험이 있으며, 64%는 AI가 추천하는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동시에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신뢰도는 2023년 72%에서 2025년 58%로 하락했다. 계산하면 72%에서 58%로 14%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AI를 점점 더 많이 활용하면서도, 그 결과물 자체에 대해서는 점점 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AI 활용의 투명성은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캡제미니 조사에서는 소비자의 약 66%가 브랜드가 AI 생성 콘텐츠 여부를 공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으며, 76%는 AI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소비자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이는 AI 사용 자체보다 이를 숨기는 행위가 더 큰 신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소비자 인식 변화는 실제 브랜드 전략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미지 보정과 인물 생성에 AI를 사용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며 ‘NO AI’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2026 K-패션 브랜드 대상 패션특화 AI 부문 | FISTUDIO

생성형 AI,
기술과 감도로 패션 비주얼 기준을 바꾼다

생성형 AI 기반 비주얼 콘텐츠 제작을 선도해온 에프아이 스튜디오(대표 김소현)가 ‘K패션브랜드대상’ AI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기술과 감도를 결합한 새로운 패션 콘텐츠 제작 방식을 제시하며 업계의 변화를 이끌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에프아이 스튜디오는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룩북, 캠페인, 디지털 콘텐츠 등 패션 비주얼 전반을 제작하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다. 단순한 이미지 생성 수준을 넘어 브랜드의 감도와 서사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해왔다.

특히 한섬, 코오롱 FnC, LF 등 국내 주요 패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축적된 경험은 높은 완성도의 결과물로 이어지며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에프아이 스튜디오의 강점은 기술 중심 접근을 넘어 ‘패션의 감도’를 기준으로 생성형 AI 활용 방식을 재정의했다는 점이다. 실제 패션 촬영의 디렉팅 프로세스를 AI 환경에 적용해 카메라, 라이팅, 스타일링, 모델의 무드까지 하나의 흐름 안에서 설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를



FI STUDIO.

통해 일관된 톤과 마스크, 의류의 세부 디테일까지 안정적으로 구현하며 브랜드가 원하는 감도를 정밀하게 시각화하고 있다.

에프아이 스튜디오는 앞으로 기획 인력을 보강해 단순 제작을 넘어 브랜드와 함께 콘셉트를 설계하고 비주얼을 만들어내는 영역까지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패션을 중심으로 축적된 비주얼 디렉팅 경험을 바탕으로 공간, 오브젝트, 뷰티, F&B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AI 시대에 부합하는 콘텐츠 제작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간다는 전략이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COSMO www.cosmofamily.com



GFRP WIREMESH



GFRP REBAR

더 가볍게, 더 강하게.
인도네시아 최초 SNI 인증 GFRP 보강근 제조사.
부식 없는 철근 대체 솔루션
Cosmo GFRP Indonesia.

Office : Menara Bidakara 1, 21st Floor, Unit 2152 & 2156 Jl. Jenderal Gatot Subroto Kav. 71-73 Kelurahan Menteng Dalam, Kecamatan Tebet Kota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870
Factory : Kawasan Industri Suryacipta City of Industry, Jalan Surya Madya XIV, Kavling I-67A3, Kabupaten Karawang, Provinsi Jawa Barat 41362
Tel. : +62 811 9630 8805
Email : jaydentyp@cosmogfrp.co.id

026 K-패션 브랜드 대상 남성복 부문 '예작'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전환 가속



YEZAC

행지I&C(대표 최혜원)가 전개하는 '예작'이 '셔츠의 명가'를 초월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제품차별화, 공격적 마케팅, 유통 다변화 등 총체적 혁신을 차근차근 실현해 간다. '예작'은 셔츠 중심 브랜드에서 캐주얼 및 토털 아이템으로 제품군을 확장하면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변화하는 남성복 시장 환경에 대응해 브랜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다. 예작은 상품군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 드레스 셔츠 중심 구조에서 탈피해 캐주얼 셔츠와 티셔츠, 기능성 아이템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스트

레치 소재 및 경량 원단 적용을 강화해 착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동시에 슬림핏과 레귤러핏 등 체형별 라인업을 유지하며 기존 고객층의 충성도를 지키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프리미엄 소재와 기능성을 결합한 차별화된 셔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인다. 최근 '아트 오브 패브릭' 시리즈의 첫 번째 라인업으로 기능성과 린넨룩 셔츠 13종을 출시했는데 소재 본연의 특성을 살리고 강점은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관리의 편의성과 실용성까지 높인 린넨라이크 소재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유통 측면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오프라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온라인 채널을 적극 강화한다. 중장년층에 집중됐던 고객층을 30~40대 젊은 직장인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엠베서더 김창욱 교수와 함께 하는 스타일링을 친숙하게 전달함으로써 남성은 물론 구매 영향력이 큰 여성 고객까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중고패션플랫폼, '의류' 넘어 '종합 리커머스' 왕좌 노린다

물류·결제 인프라 갖추고 카테고리·지역 확장 가속

경기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의 여파로 중고 패션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중고패션플랫폼은 제품 카테고리를 확대하고 물류, 결제, 데이터 기반 운영 능력에 투자하며 빠르게 사업모델 조정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중고패션 플랫폼의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유럽 기반 플랫폼 빈티드(Vinted)는 지난해 총거래액(GMV) 108억 유로, 매출 11억 유로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8% 성장했다.

2023년 매출 5억 9630만 유로와 비교하면 약 84.5% 증가한 수치다. 외형 성장 속도와는 달리 순이익은 6200만 유로로 감소했다. 이는 수요 둔화라기보다 구조적 투자 확대 영향으로 해석된다. 빈티드는 물류 네트워크 '빈티드 고' 구축과 결제 서비스 '빈티드페이' 도입, 지역 확장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 전역에 50만개 이상의 물류 거점을 확보했으며, 결제 라이선스 확보를 통해 금융 기능까지 내재화하고 있다. 이는 중고패션플랫폼이 단순 거래 중개를 넘어 유통 인프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카테고리 확장 역시 중요한 변화다. 빈티드는 기존 의류



▲중고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플랫폼들이 시장 및 카테고리 확장에 나서고 있다. 사진=빈티드

중심 구조에서 전자제품, 스포츠용품, 수집품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빈티드는 현재 26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에스토니아·라트비아·슬로베니아에 진출한 데 이어 2026년에는 미국 시장 테스트를 시작했다. 이는 중고패션 플랫폼이 특정 지역이나 카테고리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글로벌 리커머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플랫폼 간 전략 차별화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빈티드가 물류·결제·카테고리 확장을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 반면, 스레드업

(ThredUp)는 유럽 사업을 정리하고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며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2025년 매출은 3억 108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한편 옛시(Etsy)가 디판을 이베이에 매각한 것은 중고패션 플랫폼이 독립 경쟁 단계에서 대형 플랫폼 중심 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규모와 기술, 물류 인프라를 동시에 확보한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시장 성장성 자체는 여전히 견고하다. 스레드업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중고 의류 시장은 2030년 39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체 의류 시장보다 약 두 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중고 의류는 이미 전체 의류 시장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중고 봉제기계, 봉사 및 악세사리, 매입

PT. SHINHAN GLOBEL

SHIN H. G +62 858 1369 4992
Kakao ID 6shg10



PT. BIC JAYA INDONESIA

작업환경측정(K3) / 근로자 건강검진(MCU) / 사내클리닉(In House Clinic)부문
인도네시아 정부(DEPNAKER) 대행기관

인도네시아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기관,
한국 기업들의 든든한 산업보건 환경 지킴이!



노동부 장관 BIC 방문 (2022.12)



노동부 차관 BIC 방문 (2023.12)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임명 (2024.5)



수하르토 대통령 BIC 주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 지정 (1993~2007)

www.bicjayaindonesia.com

JAKARTA : Wisma Staco 6F, Jl. Raya Casablanca Kav. 18 +62 21 3049 0114 bicjaya.id@gmail.com
KOREA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57 부산 인도네시아센터(BIC) +82 51 365 0041 www.bic-korea.com



UTAMAKAN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BIC은

- 작업환경측정(K3)/산업보건 환경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최초 한국계 인도네시아 정부(노동부) 대행기관
-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업체 연 1회 작업장 환경측정/근로자 건강검진 법적 의무사항
- 한국에서 노동부 지정 산업보건기관 운영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 축적
-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검진, 사내 클리닉 (In House Clinic) 운영을 패키지로 일괄 수행
- 40여년간 한국에서 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 관광부, 노동부, 할랄청, 대표부 역할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각별한 협력관계 유지, 우리 기업들의 대 인도네시아 정부 애로사항 해결지원

프로-스펙스, 쾌적한 러닝 돕는 '경량 러닝 용품' 출시

백팩부터 벨트까지, 격렬한 동작에서도 쾌적 코듀라 소재, 타공 적용, 통기성·수납 편리해 리플렉티브 포인트로 야간에도 '안전한' 러닝

LS네트웍스의 스포츠 브랜드 프로-스펙스는 러너들이 최상의 레이스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경량 러닝 액세서리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러닝 시 번거로울 수 있는 소지품 수납을 해결해 주는 백팩, 하네스, 벨트부터 파사로운 햇살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모자 등으로 구성됐다. 모두 통풍과 경량성을 강화한 아이템으로, 격렬한 움직임에도 쾌적한 러닝 환경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러닝 경량 백팩'은 미니멀한 9l와 넉넉한 용량의 15l 구성으로, 분리 수납 구조를

활용해 용도에 따라 소지품을 보관하기 좋다. 각각 30데니아와 100데니아 코듀라 나일론 소재를 사용했고 스판 메쉬 포켓 등 경량성과 통기성을 고루 갖췄다. 리플렉티브 로고 프린팅 포인트는 야간 러닝에 필요한 시인성을 높여준다. 9l 제품은 라이트그레이와 블랙, 15l는 레드와 블랙이 있다. '러닝 경량 하네스'는 스판 밴드로 핏 조절이 가능해 몸에 완전히 밀착되고, 빠른 수납 구조로 러닝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돕는다. 앞판의 지퍼 포켓과 등판의 오픈 포켓,

작은 소지품을 걸 수 있는 그리 디테일 등 간편한 소지품 보관이 가능하다. 라이트그레이와 블랙이 있다. 가벼운 러닝에 알맞은 '러닝 경량 벨트'도 있다. 부피를 줄인 슬림 버클, 교차 구조의 디자인 등 모던한 디자인과 안정적인 수납력이 특징이다. 자외선 차단 및 피부 보호, 눈부심 방지로 보다 더 쾌적한 러닝 환경을 만들어주는 아이템도 있다. '경량 심리스 타공 러닝캡'은 측면 패널의 타공 설계로 통기성을 높였고, 흡습속건 땀밴드가 있어 산뜻한 착용감을 오래 유

지한다. 심리스 공법으로 불필요한 시접의 무게를 털어내고, 부드러운 밀착감을 선사한다. 여기에 발과 발목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컴프레션 니삭스'를 함께 매치하면 쾌적하고 시원한 러닝룩을 완성한다. 프로-스펙스 관계자는 "이번 경량 라인업은 러너들의 움직임에 제약이 없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담은 제품들"이라며 "단거리 조깅부터 트레일 러닝까지 각자의 러닝 스타일에 맞춰 선택해, 봄철 기온 변화에도 쾌적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템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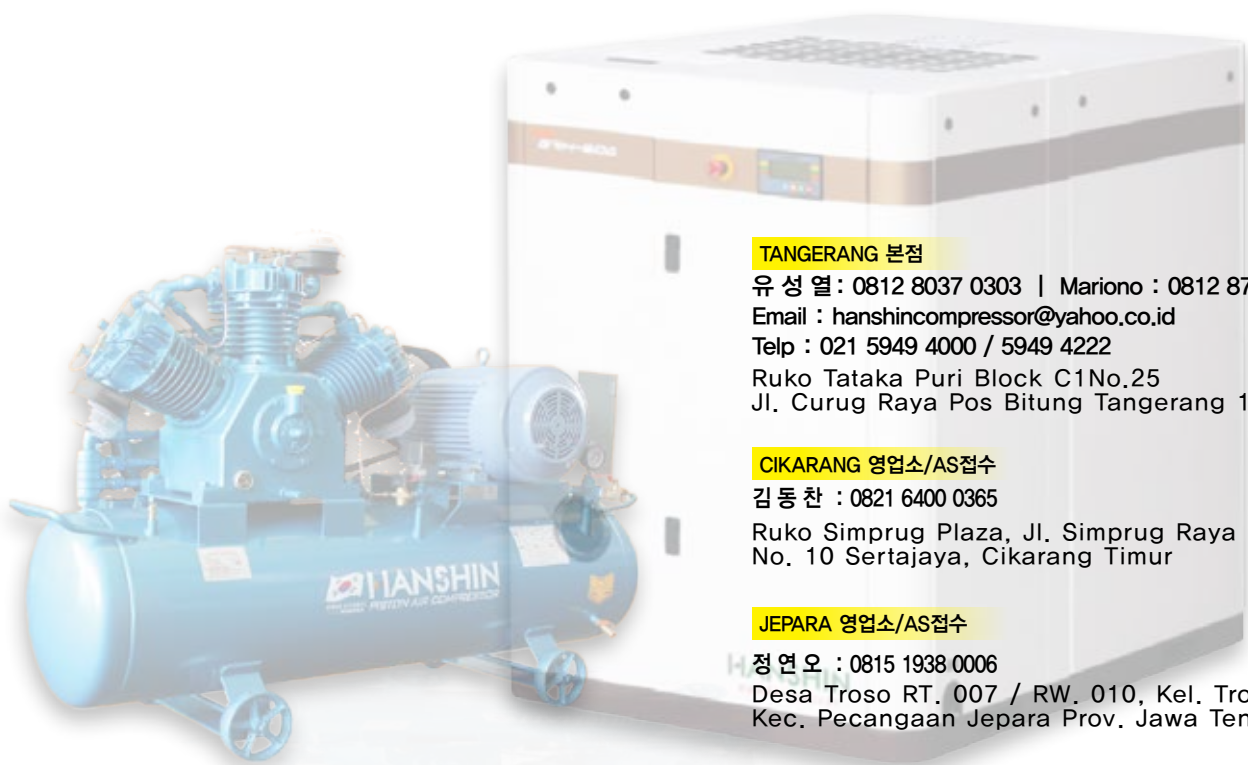
출처 : THE Biz(더비즈)



▲프로-스펙스가 러닝 시 번거로울 수 있는 소지품 수납을 해결해 주는 경량 러닝 액세서리를 출시했다. 사진은 프로-스펙스 모델이 러닝 경량 백팩을 메고 있는 모습. 사진=프로-스펙스

HANSHIN

에어 콤프레셔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CIKARANG 영업소/AS접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JEPARA 영업소/AS접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